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제3079호 www.metroseoul.co.kr

지하철역 '안전 한국' 훈련 22일 오후 서울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에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지하철역 화재 발생 시 승객대피 훈련이 열리고 있다. /중랑구청 제공

정부, 전세기간 3년카드 '만지작'

매매가 대비 70%지역 속출… 주거 안정에는 도움
"폭등 전셋값에 물량부족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미친 전셋값'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심각해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기간 연장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면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전세가격 급등, 전세 물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전세난 대책 마련 본격화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조사도 지난 17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지에는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잇딴 전·월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전셋값이 25개월째 오르면서 매매에 비해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화성·수원 일대 소형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1조원을 돌파하고, 전세대출 총액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32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전세값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어서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시대, 기간 연장 실효성 의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3년을 보장하는 게 임차인들에게는 유리하다"며 "주거안정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집주인들이 어차피 3년 동안 전세금도 못 올리는데 한 번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전세금이 높아지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한대만(37) 씨는 "3년으로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다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었다"며 "아직 전세계약을 뒤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계약이 걱정된다"고 푸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간 전세를 유지한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싼 값에 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준 뒤 월세로 전환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또 "월세로의 전환은 하나의 흐름인 만큼, 역행하기가 어렵다"며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전세를 유지하는 임대인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KB금융 새 회장에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추천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윤종규(사진) 전 KB금융 부사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내정했다. <관련기사 8면>

윤 신임 회장 내정자는 1955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의 '삼고초려'로 국민은행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7년간 KB에 재직하며 재무·전략본부 부행장,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 KB금융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 내정자는 특히 재무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KB 조직내부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KB금융을 새롭게 이끌 윤 내정자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거쳐 내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단말기 출고가·통신료 내려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경제산업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논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즉 스마트폰 가격 투명화와 통신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단통법을 시행한지 3주가 지났지만 해법은 찾지 못한채 오히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기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휴대폰 제조사와 긴급회동을 가졌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골자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에 휩싸여 이를 해명했고, 단통법 논란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핵심인 것처럼 흘러갔다.

단말기 출고 가격만 보면 애플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미국 조사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발매한 아이폰 6/6 플러스의 이익률은 약 70%대로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플의 자국인 미국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된다. 예를들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자연스럽게 통신사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경쟁 할 수 있는 틀은 정해 놓고 말이다.

갈수록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단순히 단말기 가격이 20만~30만원 저렴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출고가 인하와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인하가 병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단통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때다.

김무성·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충돌

金 "하는게 중요" vs 靑 "연내 처리"… 입장차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 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왜 그 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도 "연내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 것을 다짐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원칙적 차원에서 강조했지만 시기는 특별히 못박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갈등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정청 회동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개헌 논란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와 김 대표 사이의 파열음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출국하는 외교·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에 임하는 회장님들의 자세

여의도 패트롤

올해 국감에는 재벌 기업 회장들의 출석이 거의 없다. 일부 그룹 총수는 교도소와 병원에 있는 등 회장들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여당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호통치는 식의 국감은 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재벌 총수들이 없는 맥 빠진 국감이란 평가가 나오던 중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국감 회피용 해외 출장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같은 '회장님'인데 매년 국감을 피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이가 있다. 바로 농협 회장이다. 농협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도 아니다. 법적 성격은 협동조합인데도 농협은 '국감법'에 규정된 국감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회장은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 2005년엔 국감장 앞에서 농협 직원들이 '국감 거부'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간단체(?)에 불과한 농협이 국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일종의 농협식 관제 데모였다.

재벌 회장들은 '일반'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안마다 필요에 따라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기관' 증인은 의무 출석이다. 그래서 농협은 매년 가을이면 회장에 관한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인 경영 관련 질의는 어쩔 수 없지만, 회장 개인에 대한 연봉 액수나 사택보증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쓴다. 연봉이나 보증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몇년 전 회장 연봉이 10억원이 넘는 점이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금융권 수장과 견줘도 높은 수준이라 큰 화제가 됐다. 사택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0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여서 논란이 됐다. 이후 회장 연봉과 사택 정보는 국감에서 터부시되고 있다. 농협 직원들이 그 부분만은 말이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막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협은행이나 하나로클럽으로만 접하는 농협. 실제론 힘이 꽤 세다. 전국에 8만명의 임직원이 있고 농촌에선 정부보다 센 조직이다.

23일이 농협 국정감사다. 과연 농협 회장에 대한 질의가 나올지 궁금하다. 회장 개인 연봉이나 사택에 관한 질의가 나오지 않으면 농협 국회 담당 임직원이 일을 잘한 것이고, 질의 혹은 호통으로 이어지면 뒤에 앉은 임직원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를 것이다. /유보좌

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

초동 수사권은 남기기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 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최종 확정됐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체육 거물' 박명철 10개월 만에 등장 북한 체육계의 거물로 통하는 박명철(73) 전 체육상이 약 10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체육상은 노동신문 22일자에 실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현지지도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억류 김정욱 선교사 北은 즉각 송환해야"

정부는 22일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김정욱 선교사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면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임 대변인은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단 풍선을 비행 금지 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각계각층의 질타를 받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단통법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보조금 상한·요금인가제 폐지 필요

단통법 논란, 문제점과 대안

[글 싣는 순서]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단통법 효과가 오히려 역행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 개입을 없애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야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을 낮춘 이동통신사들의 수익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2월 이통사 평균 보조금은 42만7000원이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으로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줄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업계는 평균 보조금 1만원 감소 시 SK텔레콤은 5.7%, KT는 9%, LG유플러스는 10%씩 각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시장점유율도 5:3:2로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규·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 간 보조금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가입자에 혜택이 강화되면서 기존 고객은 기기변경을 선호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1~13일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전월에 비해 각각 52.9%, 34.6%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고객은 전월보다 40.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이통사 간 시장점유율 역시 변동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제도다. 현재 유선 부문은 KT,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인가제 대상 사업자다.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는 후발사업자와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통사의 과점체제와 담합구조를 보장해 주는 보호막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후발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되고 후발업체들은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간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종류와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된 1991년부터 23년 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이익은 무시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보호해 준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보조금 상한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 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길 때 오히려 국민을 위한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600m 길이 가래떡 22일 개막된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2천명이 먹을 수 있는 길이 600m짜리 가래떡을 뽑고 있다. /연합뉴스

통학버스 안전띠 안 매면 운전사에 과태료 6만원

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이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3만원"이라며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윤다혜기자 ydh@

애기봉 등탑 43년 만에 철거

김포의 해병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시설단이 작년 11월 각급 부대의 대형 시설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애기봉 등탑이 D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철골 구조물의 하중으로 지반이 약화해 강풍 등 외력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 전망대에 1971년 세워진 18m 높이의 이 등탑은 북한지역과 불과 3km에 거리에 있어 북한이 대북선전시설이라면서 반발해 점등식마다 북한과 갈등을 빚었다.

군이 안전진단 결과를 애기봉 등탑 철거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남 이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철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다혜기자

작년 3만쌍 '황혼 이혼'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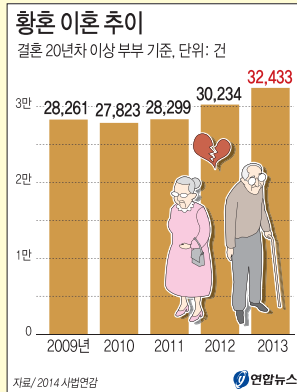
결혼은 3년째 감소

결혼은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황혼 이혼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 사건은 3만2433건이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동안 22.8%에서 28.1%로 6%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 사건은 작년 2만7299건으로 황혼 이혼보다 적었다.

새로 결혼하는 사람이 줄면서 신혼 이혼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2만5016건으로 2012년 32만9220건에 비해 1.3% 줄었다. 2011년 33만1543건에서 3년째 감소세다.

/윤다혜기자

서울지방우정청 '빅뱅, 나만의 우표' 판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빅뱅, 나만의 우표'를 서울지역 5개 총괄우체국(서울 중앙·광화문·서울강남·동대문·여의도)을 통해 다음달 7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빅뱅, 나만의 우표'는 멤버들의 미공개 모습과 앨범 이미지 등을 담은 10장의 우표와 6매의 엽서가 세트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박우표와 18K로 도금된 우표모양의 금속장식이 포함돼 있어 국내외 팬 뿐 아니라 전세계 우표수집가들에게 소장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뱅, 나만의 우표'는 서울지역 5개 우체국에서 현장판매하며 지마켓(www.gmarket.co.kr)에서도 온라인 예약판매가 가능하다.

'인사 실패' 아베 앞날은…

여성 각료 2명 낙마 야당 파상공세… 본회의 거부 5분 만에 종료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던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의 앞날이 어둡다. 여성 각료 2명이 두 달도 안돼 동시에 낙마, 야당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해 경기 부양과 지방활성화, 여성 정책 등을 내세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는 "양육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은 최근 퇴임한 두 각료를 언급하며 아베 내각을 공격했다. 노동자파견법 개정 등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도 미뤘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토사재해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와바타 다쓰오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각료 두 명이 불상사로 그만뒀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해 회의가 5분 만에 끝났다.

아베 정권은 지방 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다음 달 예정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추천한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다.

'아베노믹스'(경제정책)의 부작용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경제가 소비세인상의 여파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세 2차 인상을 앞두고 여론도 아베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소비세율 재인상에 반대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재차 인상할지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자유메달 목에 거는 말랄라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파키스탄의 소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왼쪽)가 21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수상한 뒤 목에 건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돈 내놔! 현금인출기 부숴

metro HongKong

사용 정지 카드로 출금

현금인출기에서 카드가 나오지 않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중국 여성이 화제다.

최근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현금인출기에 은행카드를 넣고 현금을 출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몇 차례나 작동을 시켰지만 현금이 나오지 이 여성은 현금인출기 화면을 부수고 맨손으로 기계 전면을 뜯어냈다.

내부가 훤히 드러난 인출기 안에 있던 명세표 용지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이 여성은 자신의 은행카드를 찾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말리지도 못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체포했다.

해당 은행은 이 여성이 사용한 카드가 사용이 정지된 다른 은행 카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약 15일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림고수가 나타났다", "맨손으로 현금인출기를 때려잡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빵이랑 책이랑 바꾸세요

metro Brazil

제과제빵연합 이벤트

Dia do pão tem al… contra dieta sem gl…

최근 세계 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파라나 주 제과제빵 연합이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의 주 내용은 빵을 책으로 교환하는 것. 쿠리치바 시에서 20명 이상의 제빵업계 관계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약 1만 4000개의 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3000개의 책으로 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장소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혈압 측정과 함께 전문의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글루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또한 무료로 배포받았다.

펠리페 보그만 제과제빵 연합장은 "제과제빵 업계의 대표로서 글루텐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글루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파울라 코피 영양사는 "글루텐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글루텐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신장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루누 브루그놀루 기자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미-중 사이버 전쟁 다시 불 붙나

아이클라우드 해킹에 중국 정부 배후설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해킹 공격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이후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해커들은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이용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이클라우드 서버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Man-in-the-middle)'이라는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배후라는 의혹도 나왔다.

온라인 검열 감시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org)의 한 관계자는 "아이클라우드 이용자는 애플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중국의 당국자들이 이용자와 애플 간에 정보를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에도 사이버 전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철강 업체 등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해킹 공격을 통해 118만대에 이르는 중국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주택청약종합저축' 매력적인 상품"

초저금리 시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유리

금융가 사람들

■ 서미영 IBK기업은행 PB고객부장

/사진=손진영기자 son@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하면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열었다. 사실상 은행 금리 1%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은행 이자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초저금리 시대, 과연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미영(사진) IBK기업은행 PB고객부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금리 시대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2년 이상 불입시 연 3.3%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일정 기간 저축을 유지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이 생긴다"면서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며, 주택청약 기능을 제외한 채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만 봐도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예금·적금만 하고 있다면 금리가 높은 한정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것도 좋다"며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납형 보험, 연금상품을 활용한 세테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부장은 '절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예금보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리스크를 동반해야 하는데,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절세'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5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서 부장은 추천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도 30% 저렴하게 책정된다. 단, 20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 역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서 부장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적금의 2배 수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최근에 중장기 투자 상품으로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라고 역설했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 시기별로 목적이 있다면 그에 맞춰 기간과 금액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한화생명, 고려대서 'CEO 아카데미' 진행

지난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화생명CEO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고려대학교 도성재 부총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은 고려대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기획한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를 지난 21일부터 8주간 고려대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참가를 희망한 법인사업자, 상장회사 대표와 고위임원, 전문직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초우량고객 40명을 선발해 초청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 고객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CEO아카데미를 통해 경영, 경제, 리더십, 교양(인문·건강·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CEO아카데미는 다양한 강좌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마당"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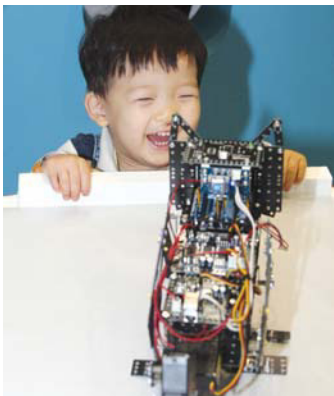
/김형석기자 khs84041@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1936.97 (+21.69)

코스닥 564.52 (+6.98)

금리(국고채 3년) 2.24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51.40 (−3.10)

환하게 웃는 아이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보월드 2014' 행사가 열려 한 어린이 관람객이 로봇을 체험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판도 바꿀 '동부특수강' 누구 품에

오늘 본입찰… 인수 의지 강한 현대제철에 세아·동일산업 참여

제철업계 판도를 바꿀 국내 2위 특수강 업체인 동부특수강의 매각 본입찰이 다가왔다.

산업은행은 23일 동부특수강 지분 100% 매각 본입찰을 열어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한다. 현재 현대제철과 세아그룹, 동일산업이 본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매입 과정에서 10조5500억원에 달하는 높은 입찰가를 써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번 인수전에서 또다시 가격 논란이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입찰가를 써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인수 의지는 강하다.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철강재는 ▲차체에 쓰이는 강판 ▲규모가 큰 부품 제조에 쓰이는 특수강 봉강 ▲볼트나 너트 같은 작은 부품을 만드는 냉간압조용 선재 등 크게 3가지다.

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현대제철은 2016년 2월부터 특수강 봉강 60만t, 선재 40만t 등 연산 100만t의 당진 특수강 공장을 가동한다. 여기에 냉간압조용 선재를 주로 생산하는 동부특수강까지 인수할 경우 현대·기아차에서 필요한 대부분 철강재를 공급할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해야 당진 공장과 연계한 공정이 완성된다"며 "특히 우리가 동부특수강을 인수해야 특수강 업계 1위인 세아그룹과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다수 영세업체들은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까지 인수할 경우 특수강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아그룹 관계자는 "특수강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부품에서 발생한다"며 "현대·기아차를 가진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철강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특수강 인수 의지는 강하지만, 무리한 금액을 낼 생각은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코스피 19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930선으로 올라섰다. 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1.69포인트(1.13%) 오른 1936.97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30원 내린 1051.40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아프리카TV 스포츠 강화

아프리카TV가 스포츠 중계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프리카TV는 해설진과 볼거리를 강화한 스포츠 중계 방송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모든 경기에 대한 생중계와 각종 동영상(VOD) 전편을 무료 제공하고, 각 스포츠 종목 전문가들이 직접 BJ(콘텐츠 제작자)로 나서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 개막하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를 위해 민훈기 해설위원과 김태우 캐스터가 함께 창작 중계에 나선다. 29일부터 내년 4월까지 대장정을 시작하는 2014-2015 미국프로농구(NBA)에는 NBA 팟캐스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파울아웃(진행 조현일, 손대범)'이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에 나선다.

이밖에 201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는 이병훈 해설과 스포츠 전문 BJ 안준모의 중계 방송, 2014-2015 프로농구에서는 석주일 코치가 펼치는 방송도 만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매출 1조' 중견기업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잘나가던 생활가전·벤처업체… 파장 클듯

해외시장에서 극찬을 받았던 종합가전기업 모뉴엘(대표 박홍석)이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은 지난 20일 농협,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총 6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 여신 규모는 기업은행이 1500억원 가량으로 가장 크고, 산업은행이 1165억원, 외환은행이 1100억원 등이다. 대출채권의 대부분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등 일부 채권은행은 모뉴엘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처리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신용 위기가 커졌다고 판단될 때 채권 만기 전에 남은 채무의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뉴엘이 농협, 수출입은행 등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연체하자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3일 각 은행에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정관리도 개시하지 않은 단계여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회수불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뉴엘은 중견 종합가전 기업으로 홈시어터PC와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 '혁신기업'으로 불리던 업체다.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 2007년 세계가전전시회(CES) 기조연설을 맡았던 빌 게이츠가 "한국의 모뉴엘을 주목하라"고 말해 화제가 됐으며 지난해 CES에서는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데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자금 부족 등으로 최근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LG전자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움직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사례가 나왔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G3비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 공용 제품인 G3는 이번 출고가 인하 방침으로 기존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 외에도 LG전자는 G3A와 Gx2의 출고가도 최대 10만원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전용 제품인 G3A는 70만4000원에서 64만원대로, LG유플러스 전용 제품인 Gx2는 69만3000원에서 59만원대로 출고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비교적 최신 스마트폰인 G3의 출고가도 89만9800원에서 84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LG전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 측에도 갤럭시S4의 출고가를 현재 69만9600원에서 64만원대로 낮추자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단말기 출고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태에서 이번 사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

연금복권520 제17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500602
		6조	28243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99254
4등	100만원	각조	33144
5등	2만원	각조	390
6등	2000원	각조	28, 23
7등	1000원	각조	6, 0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함께하는 즐거움! 메세나티켓

Mecenat Ticket
www.MecenatTicket.com

메세나티켓
2014년 10월의 추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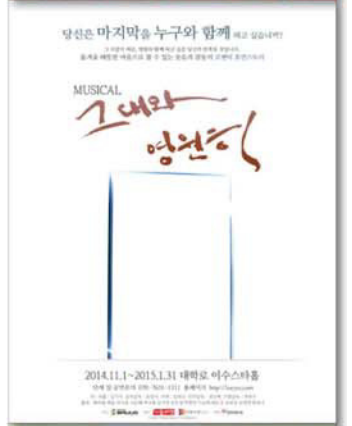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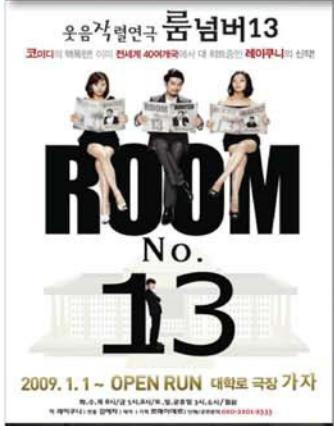
메세나티켓은 사회공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티켓 예매사이트입니다.

www.MecenatTicket.com

누구든지 만원의 행복!

NAVER 메세나티켓 검색

"외풍보다는 조직 안정 택했다"

리딩뱅크 위상 회복 급선무·LIG손보 인수등 난제 산적… 리더십 발휘기대

KB 새 회장 윤종규는 누구

재무·기획 전문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1973년 외환은행에 입행하며 금융업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주경야독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1981년에는 행정고시(25회) 필기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들어간 그는 2002년 김정태 전 행장의 '삼고초려'로 국민은행에 합류했다.

'KB맨'이 된 윤 내정자는 지난 7년간 재무·전략본부 부행장,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문제로 200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상임고문을 맡다 어윤대 전 KB 회장 시절인 2010년 KB금융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부사장)으로 복귀해 지난해까지 일했다.

그는 특히 재무·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온화하고 배려있는 인품으로 어 전 회장 시절 은행장 선출을 위해 실시했던 직원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에 뽑히는 등 내부 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백아란기자

윤종규號 과제와 전망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59)이 KB금융지주 새 회장에 내정됐다. 외풍보다는 조직 안정을 위해 후보 중 가장 오래 KB에 몸담았던 경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2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추위는 최종 면접자 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마친 뒤 투표를 통해 윤 전 부사장을 새 회장 후보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심층면접은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순서로 각 90분씩 진행됐다.

회추위 관계자는 "1차 투표에서 윤종규 후보와 하영구 후보는 5대 4의 득표를 했고, 2차 투표에서 이사 한 분이 하 후보에서 윤 후보로 마음을 바꿔 6대 3 득표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부사장의 차기 회장 내정은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이 KB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이러한 여론에 밀린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KB는 외풍보다는 조직 안정을 선택했다.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2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영진 회추위 위원장이 투표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기자 son@

윤 내정자는 당장 KB의 위상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딩 뱅크로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그동안 KB가 겪은 일련의 악재로 직원 사기는 물론 고객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익성 역시 은행권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

우선 KB의 경영 공백을 메우는 일이 급선무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KB지주는 윤웅원 부사장이, 국민은행은 박지우 부행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금융당국의 검사, 임직원 제재로 일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왔다.

수익성 회복도 윤 내정자의 당면한 중요 과제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5462억원에 불과해 주요 은행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도 절실한 시점이다. KB는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다. 향후 LIG손해보험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KB금융의 총자산은 약 319조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KB금융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부사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실추된 KB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노력해줬으면 한다"면서 "KB금융 사태가 잘못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미래지향적인 회사 구조를 갖추는데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어수선한 KB그룹 내부 분위기를 잘 수습해 리딩뱅크로서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보험업계, 사회공헌 앞장선다

동부화재 임직원 93곳서 봉사
AIA생명·삼성화재도 동참열기

보험업계가 최근 여성질환 인식 재고, 소외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국내외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10월을 '사회공헌의 달'로 정하고 한 달간 3200여명의 임직원이 93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달은 지난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포됐다.

올해는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휴가철 이후 각 지역 휴양지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 ▲양로원 등 시설방문 노력봉사와 물품후원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등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김영만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지원실 임직원 200여명이 서울 '밤섬'을 찾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작업과 쓰레기 수거, 주변 부유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AIA생명은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한암협회와 한국유방암학회가 주최한 '2014년 유방암 의식향상 캠페인 – 핑크 아트 전시회'를 후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부스를 설치해 유방암 위험도 자가진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핑크리본 풍선과 유방암 자가진단 홍보 리플릿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는 길거리 캠페인도 실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 짓기, 시골 초등학교의 비전캠프 운영, 유치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어린이재단과 '2014 임직원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해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안전키트를 저소득가정 아동 600명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한화생명은 지난 16일 대전시 동구에서 독거노인 33가구에 연탄 1만장과 연탄보일러 10개를 전달했다. 같은날 MG손해보험은 '대한적십자사 동작관악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직접 만든 빵을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IBK연금보험은 지난 18일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을 방문해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기술력우수 中企에 '이자납입유예 서비스' NH농협은행은 22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자납입유예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받은 기술등급 T4이상인 중소기업에 최대 2년 이내에서 대출금리 중 0.5%~1.0%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농협은행 제공

"대부업체, 영업 중인 저축은행 인수 못한다"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봉쇄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만약 정상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국민연금 운용인력 100명 확충

해외대체투자 해결위해… 구조조정 증권가 '희소식'

issue&view
해외 전문인력 채용 고심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민연금이 늦어도 내년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운용인력을 뽑는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증권사 직원들이 수천명씩 감축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마땅한 국내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결국 넘쳐나는 국내 인력풀을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나 늦어도 내년까지 100여명의 운용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날 한국재무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내년에 내국인 65명과 현지인력 4명 등 순수 운용역만 69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총 인력은 현 21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채용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최근 증권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인력을 국민연금이 활용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인력풀 확충에서 가장 시급한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마땅한 국내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 대체투자는 해외 투자 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연계해 딜소싱(Deal Sourcing·프로젝트 발굴)을 하고 리스크 등 사후관리를 해야하므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해외 대체투자는 부동산·인프라 등 실물자산과 사모투자,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단순히 인력 규모만 늘린다고 국민연금의 운용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양영식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은 "결국 딜소싱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업계에서 해외 딜소싱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캐나다 최대 연기금인 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외국인도 (과감하게)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금 내 한국인만 채용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수익 창출을 하는 고연봉의 업계 스타 플레이어를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채용 계획에 대해 증권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출신 우수 인력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투자, ELB 1종 및 ELS 8종 판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24일 오후 1시까지 최대 연 10.60%의 수익이 가능한 ELS 8종 및 ELB 1종을 총 9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대우증권, 인도네시아서 IB업무

KDB대우증권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언더라이팅 라이선스는 유가증권을 인수·매출하거나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의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대우증권은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의 5000억 루피아(한화 약 440억원) 규모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단독 주간사로 선정됐다.

안두상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이사는 "라이선스 취득으로 본격적인 IB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자체 신용을 이용한 현지 자금조달과 신규 진출 희망기업의 M&A 등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증권사인 이트레이딩 증권의 지분을 80%까지 인수하고 같은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김용대 금융분과장, 이상구 부원장,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 서울대 차상균 빅데이터연구원장, 신한카드 임중식 부사장, 신한카드 이종석 센터장(사진 왼쪽부터)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빅데이터와 교육이 만났다"

신한카드 – 서울대, 금융서비스 공동연구

신한카드는 22일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빅데이터 관련 이론과 실무활용이 접목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연내 첫 번째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대학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차원에서 빅데이터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에서도 각종 강의지원과 인프라 제공 등 재능기부 차원에서 동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서울대의 독보적인 기술적 역량의 결합을 통해 신한카드의 경영 효율성 강화와 新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저변확대와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에 시작하게 될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역량과 신한카드의 비지니스적 역량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원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학제적 연구수행을 목표로, 서울대 인문·사회·자연·공·의대 주요 교수진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카드 소비자경보 발령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변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아란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젊은 고객과 소통 강화

강남구 신사동에 'Mercedes me' 오픈
매직쇼·밴드 공연으로 브랜드 체험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젊은 고객과 만나기 위한 공간을 'Mercedes me'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마련한 것. 오는 26일까지 운영되는 이곳은 메르세데스 벤츠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콤팩트카를 자유롭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모든 고객에게 개방된다. 기존 고객 외에도 젊은 층에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젊고 모던한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새로운 콤팩트카를 소개하기 위한 장소다.

이를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방문객들에게 젊은 감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Mercedes me라는 트렌디한 공간을 탄생시켰다. 3개 층의 건물과 테라스로 이뤄진 Mercedes me는 최신 트렌드의 음악, 패션,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을 테마로 꾸몄다. 방문객들은 각각의 공간을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Mercedes me에서 특별히 준비한 트렌디한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Mercedes me를 방문한 고객은 전시장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 전시된 새로운 콤팩트카를 관람할 수 있다. 프리미엄 콤팩트 해치백 모델인 A클래스와 B클래스, 콤팩트 4도어 쿠페 모델인 CLA클래스, 그리고 최근 출시한 콤팩트 SUV 모델인 GLA클래스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콤팩트카 전체 모델을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Mercedes me 사이트(www.mercedes-me.co.kr)를 통해 사전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행사 기간 중 Mercedes me를 방문해 원하는 일정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23~24일 오후 2시~3시에는 베이킹 클래스와 바리스타 커피 클래스가 각각 개최된다. 21~25일에는 오후 7시30분부터 밴드 공연, DJ Shanell, DJ Mushxx x, DJ Julian Quintart 등 인기 DJ의 디제이 나이트, 마술사 최현우의 환상적인 매직쇼 등이 진행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문을 연 'mercedes me'.

번 Mercedes me 오픈과 함께 젊은 층과 한층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콤팩트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오픈 기간 인근의 트렌디한 카페, 레스토랑, 바, 브랜드숍 등에서도 새로운 콤팩트카 차량 전시와 매거진 비치, 디자인 소품 등을 통해서도 젊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젊고 모던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최초로 10월 한 달 간 버스정류장 광고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콤팩트카의 젊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각 모델별 포스터를 특별히 제작해 서울시내 총 64곳의 버스정류장에서 광고한다. 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신논현역에서는 가장 최근 출시한 콤팩트카 모델인 GLA클래스를 증강현실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광고를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의 초청이나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입장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2년 B클래스, 2013년 A클래스, 2014년 1월 CLA클래스 출시에 이어 2014년 8월 GLA클래스를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다양한 콤팩트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젊은 감각의 고객들을 위한 콤팩트카 세그먼트 라인업 강화와 페이스북 이벤트, 시승 행사, 클럽 파티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월 8일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도시 장애물 달리기 대회인 맨즈헬스 어반애슬론(Urbanathlon) 서울 2014도 공식 후원한다.

최덕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세일즈 총괄 부사장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선구자답게 지금까지 새로운 세그먼트 창출과 최첨단 기술을 내놔 자동차 업계와 고객의 호평을 받아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팬과 소통하기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공간 Mercedes me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 뉴 콤팩트카를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새로운 콤팩트카 라인업 강화와 다양한 모델로 국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미 '2014 갤럭시 어워즈' 수상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조사기관인 머콤이 진행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 '2014 갤럭시 어워즈(2014 Galaxy Awards)'에서 각각 최고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연차보고서 부문에서 자동차 부분 최고상을, 기아차는 브로슈어(안내서) 부문에서 기업 소개 부분 최고상을 각각 받았다.

/현대·기아차 제공

매달 300만원 이상 고정비 절감

유호스트 '100% 호스팅 리얼 매니지드' 주목

유호스트(www.youhost.co.kr)의 '100% 호스팅 리얼 매니지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고비용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IT 인프라와 장비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00% 호스팅 리얼 매니지드 서비스'는 고객사의 서버, 네트웍 장비, 이에 수반되는 모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준다. 1대1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기 때문에 고객사는 별도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서버 운영 관리 전문 담당 직원을 고용 했을 경우 발생하는 최소 월 300만원 이상의 고정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윤석 대표는 "'100% 호스팅 리얼 매니지드 서비스'는 맞춤형 초기 컨설팅부터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 타 업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월 15만원 이상의 운영 관리 비용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스마트폰 64비트 시장 내년부터 본격화

프로세서·운영체제·램 등 기반 마련

구글이 64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지원하는 첫 OS인 안드로이드 롤리팝을 선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64비트 스마트폰 시대로 돌입한다.

AP는 컴퓨터의 CPU와 같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64비트 AP는 이론상 데이터 처리 속도가 34비트보다 2배 더 빠르다. 이미 시장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410', 미디어텍 'MT6732' 등 64비트 AP가 나와 있다. 그러나 64비트 AP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램과 OS도 64비트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스마트폰에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구글이 내놓은 안드로이드 롤리팝이 64비트 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64비트 AP를 제대로 활용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이다. 롤리팝은 엔비디아의 64비트 AP '테그라K1'이 탑재된 태블릿PC '넥서스9'에 처음으로 채택됐으며 앞으로 출시될 64비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과 대만의 HTC가 합작해 내놓은 신형 태블릿 PC 넥서스9.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최신 기준(레퍼런스)으로 개발하면서 롤리팝이 탑재됐다.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노트4에 자체 64비트 AP '엑시노스7 옥타'에 적용한 상태다. 갤럭시 노트4의 OS인 안드로이드 킷캣이 32비트 기반이기 때문에 64비트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갤럭시S6 등 차기작에서부터는 롤리팝을 적용해 64비트 AP를 정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소니·화웨이 등 외국 업체들도 내년 초 64비트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4비트 AP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램 역시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업계는 64비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 그에 들어갈 새로운 램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릴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64비트 AP를 구동하기 위한 8Gb의 모바일 D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에서 8Gb 서버용 D램이 나온 만큼 늦어도 내년 중에는 모바일용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도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을 64비트로 포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올 연말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PC게임처럼 그래픽이 뛰어난 '대작' 게임 등 고사양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64비트 AP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탈스펙' 이라는데 스펙은 高高

토익 800점 이상 2.7%P↑… 인턴 경험·자격증 개수도 늘어나

구직자들이 취업 스펙을 올려도 근본적인 취업 고민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구잡이식 스펙을 올리는 것보다 목표 직군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발휘해야 효율적이란 분석도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기준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신입 이력서 20만8453건을 분석한 결과 학점을 제외한 영어, 자격증, 인턴 등의 스펙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직자 학점은 4.5점 만점 기준 평균 3.5점(B+)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그외 스펙은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하반기 취업 준비생의 800점 이상 토익 고득점 비율은 39.5%로 전년 동기 36.7%보다 2.7%포인트 많아졌다. 토익 평균 점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741점, 올해 상반기 746점과 하반기 748점으로 매분기 상승세를 보였다.

실무 경험도 많아지는 추세다. 신입 구직자 5명 중 1명(21%)은 인턴 경험을 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8.6%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직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개수는 평균 3개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신입 구직자들의 평균 자격증 개수는 2개였다.

취업을 위해 점수를 올리고 경험을 쌓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이를 가장 큰 취업 고민으로 여기고 있었다. 채용 규모나 서류 전형보다 취업 스펙 상향 평준화가 제일 어렵다는 지적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최근 취업준비생 117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채 준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지원자들의 고스펙화'를 취업의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이어 '줄어든 채용공고'(44.9%), '까다로워진 자기소개서 항목'(35.2%), '채용공고 검색'(11.4%), '변화된 채용절차'(8.2%)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구직자들의 하반기 입사지원 횟수는 평균 15회로 집계됐다. 이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4.5%였다. 높은 스펙을 쌓고 원서를 10개 넣어도 1개가 겨우 통과되는 셈이다.

최창호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운영위원장은 "목표 기업과 직무에 상관없이 단순히 스펙 향상을 목표로 구직 준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남들과 차별화되면서 지원하는 직군에 맞춰진 인재임을 드러내는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행운을 잡아라 22일 애플 리셀러 매장 최초로 APR(애플프리미엄판매점, Apple Premium Reseller) 2.5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문을 연 서울 명동 프리스비 앞에 럭키백 이벤트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날 프리스비 명동점은 재개장을 맞이해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맥북 프로, 아이패드, 헤드폰 등이 무작위로 들어 있는 럭키백 판매 이벤트를 벌였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조직개편 속도 낸다

조선 3사 영업조직 통합 '선박영업본부' 출범… 기획실 재정비

현대중공업이 최근 임원 31%를 감축한 데 이어 조직통폐합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사의 영업조직을 통합한 '선박영업본부'를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선박영업부와 기본설계부는 서울 계동사옥으로 이전해 합류한다.

또 기획실도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통합했다. 기획실은 기획팀, 재무팀, 인사팀, 커뮤니케이션팀, 윤리경영팀, 준법경영팀, 자산운영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대중공업은 7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부 아래부문 단위가 기존 58개에서 45개로 22% 줄었고, 전체 부서도 432개에서 406개로 감소했다.

해외법인과 지사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들어간다. 현대중공업 조선 3사는 해외에 25개 법인과 21개 지사 등 46개 해외조직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성과가 낮은 법인과 지사는 통합하기로 했다.

해외주재원도 대폭 줄이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단기파견 형태로 근무하기로 했다. 국내지사도 그룹 지사망을 활용해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전담팀'도 신설했다. 이미 임직원들의 건의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의견 수렴을 위해 이메일 접수 뿐 아니라 현장 임직원들의 의견도 직접 듣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한계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작업, 공정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현장의 혁신 작업 등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단열용 에어캡 구경하세요" 아이파크백화점은 31일까지 '보온 인기상품전'을 열어 삼중 단열 에어캡과 방한커튼, 차렵이불 등을 특가 판매한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팬택 '베가 R3' 킷캣 업그레이드

팬택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년 전 출시된 스마트폰 베가R3의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사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팬택은 2012년9월 출시한 베가R3를 현행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 '킷캣'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 제품은 21일부터, LG유플러스 제품은 22일부터 시작된다.

베가R3는 출시 당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으로 나온 이후 지난해 '젤리빈'으로 한 차례 OS를 업그레이드 한 바 있어, 이번 업그레이드는 두 번째가 된다. 제품을 킷캣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자환경(UI)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한창현 팬택 고객감동실 실장은 "최근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고있어 이번 킷캣 업그레이드가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베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후서비스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이동국·한송이·문태종의 진짜 모습은

스포츠 스타 인스타그램 사랑 화제

사진·동영상 공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화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전북 현대 모터스의 이동국(@dglee20)으로 익살스러운 사진과 해시태그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선물 받은 셀카봉으로 팀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가 하면 '#서울구경' '#서울영감' '#서울에서온그대' 등 재미난 해시태그로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여자 배구선수 중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 여자 배구 금메달 주역인 김연경 선수(@kimyk10)와 한송이 선수(@ssongr12)의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김연경 선수는 6만여 명의 팬을 거느린 인스타그램 스타다. 한송이 선수는 최근 손연재 선수, 박태환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2000개에 육박한 '좋아요'를 받았다.

'셀카봉' 마니아로 알려진 농구의 문태종 선수(@moontaejong75)는 청와대에서 찍은 농구 대표팀 단체 셀카 사진을 올려 큰 인기를 얻었다.

이밖에 축구의 김신욱(@kimshinwook88), 윤일록(@yunillok), 장현수(@jhsoo15), 배구의 이민규(@mingyu6), 이재영(hsj0645), 배유나(@baeyoona), 박정아(@jeongah10), 야구의 이태양(@risngsun55) 선수 등도 인스타그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세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고양삼송 동일스위트 1차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대박 행진… 위례 찍고 동탄, 다음은 어디?

신도시 개발 중단, 희소가치 영향 인기 상승

수도권 가을 분양대전이 정점에 이른 가운데, 위례·동탄·미사강변 등 신도시에서 지역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대박' 성적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2순위 청약 접수를 한 '동탄2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은 평균 11.5대 1, 최고 98.5대 1로 전 타입 마감을 기록했다.

이는 순위 내 마감은 했지만 평균 경쟁률이 4대 1을 넘기지 못했던 다른 단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해 동탄2신도시 최고의 성적이다.

앞서 이달 초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위례 자이'는 평균 139.0대 1로 마감됐다. 위례 평균 7.5대 1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은 물론,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까지 갈아치웠다. 지난달 LH가 미사강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하남시 평균 4.1대 1을 웃도는 11.0대 1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박을 터뜨린 단지들의 공통점은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된 신도시 아파트라는 점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향후 최소 3년간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중단되면서 신도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수직상승한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신도시·택지지구 내 아파트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아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과 편의성이 일반 아파트보다 좋기 마련"이라며 "입지가 좋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률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2의 동탄2 반도유보라, 위례 자이를 노리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도 대거 계획돼 있다.

한라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이달 말 공급한다. 총 6700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이하 동일) 71~138㎡, 2701가구가 1차로 선보인다. 배곧신도시 핵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특별계획구역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함께 조성된다.

GS건설은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A21블록에 '미사강변센트럴자이' 1222가구를 분양한다. 91~132㎡로 이뤄졌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으로 복합쇼핑몰 신세계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선다.

동일은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7블록에 공급하는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1차'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한다. 전체 968가구, 66~84㎡로 구성된다. 뉴코리아CC 조망권을 확보했고,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 거리다.

같은 날 호반건설도 오산 세교신도시 D-1블록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세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84~99㎡, 955가구 규모다. 국철 오산대역이 걸어서 10분가량 소요되며,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교가 있다.

이밖에 경기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A2-2블록에서 '자연&자이e편한세상'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우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Aa-03블록에서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를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아크로타워 스퀘어 청약 시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에 공급되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청약 시작일인 22일 서울 양평동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35층짜리 아파트 7개 동, 전용 59~142㎡ 1221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65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연합뉴스

사라지는 '택지지구' 수요자들에겐 높은 인기

9·1대책에서 향후 3년간 LH가 택지지구지정을 유보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서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택지지구와 비 택지지구의 주택형 1순위 청약을 분석한 결과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이 비 택지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은 2013년 52.3%, 2014년 53.5%로 절반 이상이 마감되고 있다. 하지만 비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비중은 2013년 29.7%, 2014년 43.3%로 택지지구와 비교하면 10%p 이상 낮은 마감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자들이 택지지구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최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택지지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은 53.7%로 비 택지지구의 41.0%에 비해 높았으며, 이후에도 10%p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택지지구는 1순위 청약마감 비중도 높지만 청약미달 주택형도 비 택지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미달 주택형 비중은 2014년 택지지구가 10.0%로 비 택지지구 24.4%에 비해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0% 이상의 주택형이 3순위내에서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기를 엿 볼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9월 전월세 거래량 15% 늘어

8개월째 증가세 이어져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하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0만8365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거래량(11만2301건)과 비교해서는 3.5% 감소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난 110만4089건이 거래됐으며, 최근 3년 평균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7%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월세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2.7% 늘어난 7만2853건이 거래됐고 지방에선 20.1% 증가한 3만551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18.5% 증가한 5만286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2% 늘어난 5만8079건으로 집계됐다.

임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는 16.4% 증가한 6만5893건, 월세는 12.9% 늘어난 4만2472건이었다.

전체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은 39.2%로 지난해 9월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김두탁기자

"물고기가 신기해요"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이 한화그룹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관람하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비정상의 정상화」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2015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소득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란?

2015년부터는 소득산정방식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원(대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14년 9월 23일(화) ~ '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이전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www.kosaf.go.kr 1599-2000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본인 확인	동의대상 선택	동 의	결과 확인
온라인 사전동의 선택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동의 바로가기 참조	실명확인 및 사전동의 정책동의 가구원(부모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대상자 (학자금신청자) 정보입력	개인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활용 동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자 본인(부모 및 배우자)이 학자금 지원 대상자(자녀, 배우자)에 대한 동의 결과 확인

가을철 복병 '우울증'…'멘탈푸드'가 대안

성인 8명 중 1명 증상…간편 건강식이 도움

풍요로운 가을이지만 일조량의 감소와 큰 일교차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가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한국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8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이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한다.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취미생활, 휴식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성분을 함유해 음식으로 기분을 다스리는 '마음의 양식' 즉 '멘탈푸드(Mental Food)'들도 주목받고 있다.

급식업체인 아워홈은 지난 17일 전국 800여 급식장에 '항우울제 성분 함유로 우울증을 극복할 건강식단'을 제공했다. 이 식단에는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serotonin)이 많이 함유된 식재료와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오메가 3지방산·우리딘(uridine)·비타민B 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됐다.

또 피로회복과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켜주는 엽산·마그네슘·아미노산이 들어간 식재와 엔도르핀(endorphin)을 생성해주는 유제품·초콜릿 같은 후식도 함께 제공했다.

식사를 통해 이런 성분들을 섭취

우울증 극복하기

Carpe diem!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식사와 함께 행복하세요!

하기 힘들다면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린 포도가 들어간 켈로그의 시리얼 '코코넛 그레이프 그래놀라'는 단백질이 풍부한 귀리, 칼슘과 식이섬유가 많은 보리, 비타민E가 함유된 통밀, 고소한 옥수수와 쌀 등 몸에 좋은 다섯 가지 곡물이 함유되어 있다.

천연 항산화 식품인 녹황색 뿌리채소 당근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4가지 과일인 오렌지·사과·백포도·망고의 과즙을 조화롭게 배합한 코카콜라의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5 alive)'도 우울증 해소에 좋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심신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항산화제인 폴리페놀·비타민 C·E 등이 다량 들어있어 피로감을 덜어준다. 풀무원건강생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잇슬림'이 선보인 국내 최초 냉장 즉석밥 '잇슬림 라이스 4종'는 다양한 잡곡과 함께 녹차잎 등 채소를 사용해 평균 150㎉(130g)로 기존 즉석밥 제품(130g)보다 칼로리를 20% 낮췄다.

뇌기능 발달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견과류와 함께 엄선된 건과일을 담아낸 돌(Dole)코리아의 '후룻&넛츠 골드라벨'은 크렌베리·호두·아몬드·캐슈넛 외에 헤즐넛을 사용해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와 비만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 밖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시금치·아스파라거스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견과류·우유·키위 등의 섭취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해독·착즙 등 건강주스 열풍

레시피 활용 제품 잇따라 출시 인기

포만감을 주면서 영양소가 풍부해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건강주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주스를 비롯해 물과 설탕을 넣지 않은 100% 과일주스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제품은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데다 미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화제를 모아온 해독주스가 시중 제품으로도 출시됐다. 해독주스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대상웰라이프는 해독주스 레시피를 활용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프레시톡'을 출시했다. 브로콜리·양배추·당근·토마토·바나나 등의 재료 준비와 조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줘 마시기 간편하며, 해독주스 다이어트에도 활용할 수 있다. 삶은 채소와 바나나 등 포만감 높은 과일이 들어가 식사대용으로도 좋다.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생과일을 바로 짜서 마시는 착즙주스도 최근에는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일유업 '플로리다 내추럴 프리미엄 주스'는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00% 과일을 착즙한 원액주스다. 웅진식품도 100% 착즙주스 '자연은 지중해 햇살'을 선보였다.

커피전문점과 외식업계도 이 같은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일주스를 잇따라 메뉴에 추가하고 있다.

스무디킹은 생과일 그대로의 풍부한 영양과 진한 맛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레몬티와 자몽티 등 '후르츠 스퀴즈 티 2종'(사진)을 최근 선보였다. /정영일기자

SPA브랜드, 홈쇼핑·마켓서도 통한다

차별화 전략 내세워 공략

패션 시장에서의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의 약진이 홈쇼핑과 오픈마켓 시장으로 옮겨왔다. 기존 SPA 브랜드와 차별화한 상품 전략을 내세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SPA패션 시장 규모는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2~3년 내에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PA는 기획부터 생산·판매 등을 한 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유행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옥션은 이 구조를 비슷하게 도입한 전문관 베이직웨어를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성수동·대구 등 전통적으로 섬유패션에 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업체들을 입점시켰다.

옥션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글로벌 SPA 브랜드에 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라며 "실제 한 셀러는 지난해 옥션에서의 매출이 미비했지만 베이직웨어를 토대로 현재 월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도 SPA 시장에 가세했다. GS샵은 한세실업과 손잡고 스테니(StenNY·사진)를 론칭했다. 일회성으로 많은 상품을 출시하는 기존 브랜드와 달리 연간 15개를 넘지 않는 소수 상품만 엄선해 제작하고 있다. GS샵은 이 브랜드로 지난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9월까지 3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다음 달 남녀 라쿤패딩점퍼를 시작으로 가을·겨울 시즌 판매에 들어간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창립 26주년 '1+1 대축제'

구이메뉴 시킨 양 만큼 '덤 증정' 이벤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고객감사 1+1 대축제'를 벌인다.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메뉴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수만큼 나갈 때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증정한다.

단, 매장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 및 정식류는 제외되며 신림·시흥점은 주중에만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전 매장에서는 와인(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 쇼비뇽) 1병을 시키면 결제 때 와인(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무료 증정하는 '와인 1+1 기프트' 행사도 함께 벌인다.

또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5팩·15인분)는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말까지 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롯데칠성음료 '망고코코' 등 선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국내 망고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신제품 '망고코코'와 '애플&망고'를 선보였다.

회사 측은 색다른 식감과 이색적인 맛을 앞세워 망고음료에 익숙하지 않은 10~20대 소비자를 비롯해 기존의 단일과즙을 사용한 망고음료에 식상함을 느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망고코코는 달콤한 망고 본연의 맛에 코코넛 젤리를 더한 제품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젤리의 씹는 재미를 살린 망고젤리음료이며, 애플&망고는 망고에 사과 과즙을 섞어 색다른 새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혼합망고음료다. /정영일기자

가을 화장품 대세는 '마스크 팩'

간편한데다 집중 보습관리 가능해 인기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핫한 아이템은 단연 '마스크팩'이다.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해 여배우나 슈퍼모델들이 마스크팩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팩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집중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스크 시트 한장에는 에센스나 크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함유돼 있어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동인비의 '동인비진 마스크'는 동인비진 에센스 반병이 담긴 안티에이징 집중 케어 마스크로, 홍삼사포닌과 홍삼농축캡슐이 함유돼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고 탄력있게 가꿔준다. 무방부제 천연 바이오셀룰로오스 소재를 활용해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눈가를 특별 관리해주는 전용 마스크도 등장했다.

겔랑의 '수퍼 아쿠아 안티 퍼피니스 스무딩 아이 패치'는 고농도 수분을 눈가 피부에 고스란히 전하는 강력 보습 아이 패치다. 민감한 눈가 피부 형태에 맞도록 설계돼 사용 즉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푸석푸석한 현상도 줄여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목 주름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동안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목 라인까지 신경써야 한다. 전용 마스크팩을 활용하거나 크림을 바를 때 목과 쇄골까지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니스프리의 '스페셜 케어 마스크 목&쇄골'은 목에서 쇄골까지 한 번에 케어해 탄력있는 목과 쇄골 라인을 완성해주는 마스크다. 7가지 허브가 피부에 휴식과 생기를 전한다. 세안 및 샤워 후 물기를 제거한 뒤 마스크를 꺼내어 펼친 후 목의 모양에 맞게 붙이고 10분~20분 후 떼어내면 된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얼굴 피부 만큼 급격히 건조해지는 부위가 바로 입술이다. 더페이스샵의 '페이스 모델링 패치 촉촉입술'은 거칠어진 입술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탱글탱글한 입술로 가꿔주는 입술 전용 팩이다. 크랜베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입술 모양에 맞게 패치를 붙인 뒤 10분 후 제거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가을철 정전기 방지법은?

뿌리는 섬유유연제 등으로 예방

정전기는 가을·겨울철 불청객 가운데 하나다. '정전기'는 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건성 피부인 사람에게 자주 일어난다.

정전기는 그 자체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복되면 불쾌한 기분과 함께 스트레스를 주고 , 피부 질환이 있던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빨래 때 섬유유연제 사용

니트·스웨터·가디건 등 두꺼운 옷을 자주 입는 가을과 겨울에는 단순히 옷을 입고 벗을 때 발생하는 마찰로 정전기가 쉽게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옷 세탁 때 섬유유연제로 반드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외출 때는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는 스프레이 타입의 섬유유연제를 수시로 뿌려준다. 옷을 보관할 때 옷 사이사이에 종이를 끼워 넣어주는 것도 예방법이 된다.

◆실내 적당한 습도 유지 필요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정전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못한다. 이는 정전기가 습기와 상극이기 때문인데 평소 실내에 적정 수준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젖은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가동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승차전열쇠나동전으로 툭툭

차를타고 내릴때 무심코 차문을 열었다가 정전기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차문을 열기 전에는 열쇠나 동전과 같은 물건으로 차체를 가볍게 두드려주어 전기를 흘려 보내준다. 또 화학 섬유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므로 가급적 자동차 시트커버는 화학섬유보다 천연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머리 감을 때는 보습력 중요

가을에는 머리카락에도 수분이 부족해 머리를 만질 때마다 정전기가 쉽게 발생한다.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때는 보습력이 탁월한 헤어 제품을 사용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찬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헤어 드라이어가 아닌 자연바람에 말려주고, 빗질할 때는 플라스틱·금속 소재보다는 고무 소재 빗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영일기자 prms@

'계면활성제' 무첨가 샴푸 뜬다

뷰티업계에 계면활성제 무첨가 바람이 불고 있다. '계면활성제'란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화학 첨가물로 샴푸·비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면활성제가 탈모 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프리계면활성제' 샴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탈모·비듬으로 고민하는 이들은 계면활성제가 없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해 화학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두피를 자극,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 탈모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계면활성제가 일절 함유되지 않은 그라함스의 내츄럴 샴푸는 마누카 꿀과 오가닉 허브 등이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영양을 공급한다. 컨디셔너도 역시 천연 성분으로 이뤄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내추럴 성분의 컨디셔너는 두피의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도 윤기를 더해 모발을 건강하게 가꿔준다.

버츠비의 베리 볼류마이징 샴푸 위드 포머그래넛은 실리콘 대신 항산화를 돕는 석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을 함유해 건조한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은 제품으로 풍부한 거품과 순한 자연 향이 진정 효과를 발휘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아로마티카의 '프랑킨센스 리페어링 샴푸'는 프랑킨센스 오일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 가늘고 잘 끊어지는 모발을 튼튼하게 관리해준다. 실리콘은 물론 설페이트(화학계면활성제)까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아쿠아픽, 음파칫솔 AQ110 출시

오랄케어 전문기업 아쿠아픽에서 새로운 개념의 음파칫솔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AQ110 모델로 1분에 2만에서 3만회의 진동으로 치석 제거에 도움을 주며 무접점 충전방식으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물기를 건조하지 못하는 칫솔의 특성상 세균번식이 우려되는 만큼, 적외선 살균기능과 어린이의 구강에 맞게 중간 칫솔모와 치간칫솔모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www.arambi.kr)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품 문의는 무료 상담 전화(080-605-7000)로 하면된다.

아쿠아픽은 구강세정기·치과기자재·치아미백전문의약품·가글치약 등을 판매하며 치아 토탈케어에 앞장서 온 기업이다. /김수정기자

편의성 고려 '작고 가벼운' 제품 눈길

크기를 작게하고 무게를 줄여 공간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PN풍년은 1구형 'PN 포지 인덕션 쿠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구형의 작은 크기로 공간의 효율성이 높고, 5만원대로 가격부담도 줄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이들의 장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과 전력소모를 방지하는 전원차단 기능도 갖췄다.

도루코리빙의 '마이셰프 세라믹 코팅 냄비 베이직 라인'(사진)은 뚜껑에 손잡이를 부착해 수직으로 세워놓을 수 있어 조리 중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도루코리빙 관계자는 "원룸 등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관할 때 공간을 덜 차지하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써모스가 지난해 출시한 원터치 텀블러 'JNL'은 350㎖ 기준 17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해외 명품원료 국내서도 통할까

비타민·면역력 증강 등 다양한 제품 등장

현대인 최대의 고민과 관심은 건강이다.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법에 집중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운동을 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비타민을 섭취한다. 그중 해외에서 이미 그 효능을 높이 평가받아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원료가 주목받고 있다.

◆최고 품질의 영국산 비타민C

먼저 고려은단은 2016년 6월까지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인 DSM사로부터 영국산 비타민C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받는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DSM사는 건강식품과 영양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1934년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원료를 생산한 이후 80년 동안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영국에 공장을 두고 유럽의 규제에 맞춘 설비와 자사의 품질보증제도인 '퀄리씨(Quali-C) 제도'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려은단은 믿을 수 있는 원료 확보와 안정적인 품질 보증을 위해 지난 2009년 첫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원료를 이용해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인 '비타민C 1000'과 '비타플렉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자동화 설비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면역 효과

헬스케어 신소재 전문 바이오기업 내츄럴엔도텍의 면역 증강 건강기능식품 '면역엔글루칸'과 '슈퍼글루칸'은 '웰뮨'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BIOTHERA가 개발한 세계적인 면역 증강 신소재인 웰뮨은 빵 효모에서 추출한 효모 베타글루칸으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약 90%에 달한다. 또 유명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이뮤놀로지(Journal of Immunology)·블러드(Blood) 등 18종의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에 소개될 만큼 면역력 증강 효과와 안전성은 뛰어나다.

그중 미국의 대표적인 소아과 아카데미 의학저널인 페디애트릭스(Pediatrics)는 3~4세의 건강한 아이 310명을 대상으로 한 면역 건강 연구에서 웰뮨을 첨가한 분유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항생제 처방, 병으로 인한 결석이 감소했으며 백혈구 수 증가까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슈퍼글루칸은 웰뮨과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를 배합한 제품이며 면역엔글루칸은 웰뮨과 전통 식물 소재에서 추출한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는 항산화 물질

'PME88멜론추출물'은 프랑스 아비뇽지역에서 생산되는 칸탈로프멜론에서 추출되는 항산화SOD다. 일반 멜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배되는 칸탈로프멜론은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PME88멜론추출물은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받았다. 또 최근에는 혈관벽 두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개별인정을 얻기도 했다.

현재 씨스팜은 PME88멜론추출물을 이용해 혈관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혈관팔팔'과 간건강 개선을 위한 '간건강 밀크씨슬' 등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11월 출시 예정인 혈관팔팔은 혈관 두께 증가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라 기존의 혈관 기능 개선 제품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만성 피로 "지나치지 마세요"

최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증가하고 있다. 일조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로란 비정상적인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떤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발산하기 어렵고 정신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피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면 지속성(prolonged)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chronic) 피로다.

피로의 원인은 무리한 신체 활동으로 생기는 체력 저하와 잦은 음주나 야근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수면장애 등이며 결핵이나 감염 질환 등을 앓고 있어도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 역시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만성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 생활 속 잘못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전문의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력을 증진시키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피로 감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해소하는 것이 도움된다. /황재용기자

끊임없는 야근, 조심해야 할 질환은?

끼니 거르면 담석증,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야근이 직장인의 일상이 될 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은 오래 앉아 있어 생길 수 있는 치질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담석증을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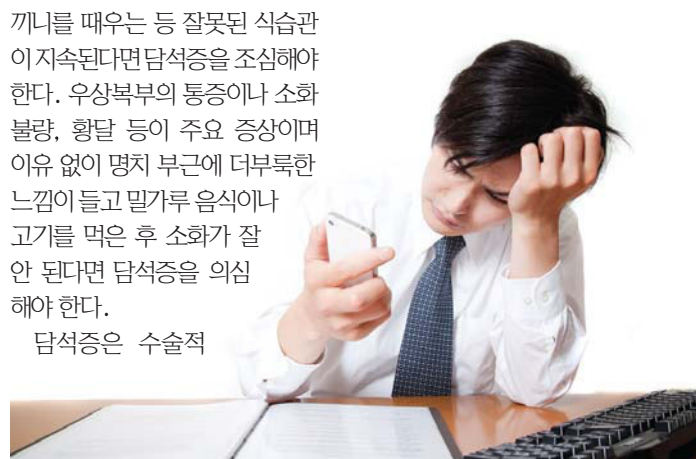
야근을 하게 되면 10~12시간을 고스란히 의자에 앉아 있게 된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상복부의 압력이 항문 부위에 전달돼 항문 주변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이것이 반복되면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치질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변비가 있으면 치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등 항문 질환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이 필요하다. 또 주변에 알리기가 껄끄럽고 업무가 바쁘단 핑계로 치료를 늦추면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동지혈기를 이용해 적은 출혈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거르고 빵이나 햄버거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된다면 담석증을 조심해야 한다. 우상복부의 통증이나 소화불량, 황달 등이 주요 증상이며 이유 없이 명치 부근에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밀가루 음식이나 고기를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담석증을 의심해야 한다.

담석증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데 단일공복강경 수술법 등을 이용하면 최소 부위를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적고 수술시간이 짧아 회복이 빠르다.

민상진 메디힐병원 원장은 "야근을 해도 식사를 제대로 먹어야 하며 사무실에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월경전증후군 식습관 개선 도움

이사라 이대목동병원 교수

생리가 시작하기 전 나타나는 무력감이나 우울감, 두통이나 유방통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월경전증후군이라고 한다. 당연한 증상이라 여겨 참는 여성들이 많지만 월경전증후군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실제적인 건강 문제다. 이에 이사라(사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서 월경전증후군에 대해 들었다.

먼저 월경 전 나타나는 일련의 신체·정서·행동적 변화가 대인관계 또는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면 월경전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월경전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호르몬 이상과 약물 복용, 흡연, 음주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과도하게 짠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 또 흡연과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극도의 정신적 우울감이나 감정의 변화와 함께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재용기자

30~40대 여성 위암 사망률 높다

식생활 개선하고 반드시 정기 검진 받도록

위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위암 사망률은 30~40대 여성이 가장 높아 여성 건강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여성의 위암 사망률은 18.25%인데 반해 30~40대 여성의 위암 사망률은 24.5%였다. 또 이는 30~40대 남성 사망률(19.1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젊은 층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검진 비율이 낮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암은 초기 통증이 없고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속쓰림과 더불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위출혈로 대변 색이 흑색으로 변한 경우는 위암을 의심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탄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나 흡연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김새론(14)은 아홉살에 찍은 데뷔작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답지 않은 섬세한 연기로 영화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 '아저씨'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김새론은 영화 '이웃사람' '만신' '도희야'와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엄마가 뭐길래' '여왕의 교실'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장르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출연하면서 또래 아역배우와 다른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중학생이 된 지금 변함없는 연기력과 부쩍 자라난 모습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깊이 있는 마음 전하고 싶어요"

'맨홀' '하이스쿨: 러브온'의 김·새·론

신선한 소재에 끌린 '맨홀', 청각장애 연기 도전
'하이스쿨: 러브온' 실제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
"처음부터 잘 맞았던 연기가 가장 즐거워"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맨홀'에서 김새론은 언니와 단둘이서 살아가는 청각장애 소녀 수정을 연기했다. 맨홀이라는 신선한 소재,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청각장애 연기라는 점에서 선택한 작품이었다. 쉽지 않은 촬영이었지만 큰 걱정은 없었다.

"시나리오만 봐도 편하게 찍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힘든 걸 감수했죠. 어떤 작품을 해도 고생은 다 하거든요.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중요한 건 청각장애의 표현이었다. "맨홀이라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공포를 표현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수화도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썼어요." 힘든 현장이었지만 친언니 같은 정유미와 다정한 정경호와 함께 하며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

지난 7월11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KBS2 청소년 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에서는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은 '소녀' 김새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새론은 위기에 빠진 남학생을 구하려다 인간이 된 천사 이슬비 역을 맡아 그룹 인피니트 멤버 우현, 성열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슬비는 제 성격과 많이 비슷해요. 밝은 캐릭터라서 편하게 촬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죠. 다만 그 동안은 설경구, 정보석, 김윤진 선배님들처럼 큰 선배님이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우현 오빠랑 성열 오빠가 친오빠처럼 잘 해줘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김새론은 아역배우들 중 유난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 '아저씨'를 비롯해 '나는 아빠다' '이웃사람' '바비', 그리고 지난 5월 개봉한 '도희야'까지 김새론은 등급 때문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다른 아역배우들에 비해 어둡고 무거운 내용의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새론은 "배우라면 어두운 역할도 밝은 역할도 다 소화해야 한다"며 "내 연기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속상함은 없다"고 말했다.

김새론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자신의 출연작을 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어떤 영화든 극장에서 먼저 보고 싶기 때문이다. "TV를 보다 '아저씨'가 나올 때도 그냥 채널 돌리듯 다른 채널로 돌려요. 제가 나온 영화는 꼭 극장에서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두 번 볼 때와 세 번 볼 때의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는 극장에서 다섯 번 정도 봐요. '7번방의 선물'은 네 번이나 봤고 '늑대소년'도 다섯 번이나 봤어요."

최근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김새론은 여느 중학생과 다를 것 없는 15세 소녀다. 바쁜 촬영 스케줄 때문에 학교는 자주 못 가지만 쉴 때는 친구들과 만나 어울린다. 그러나 좋아하는 담임선생님의 과학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영화 못지않게 웹툰도 좋아한다. 장르에 상관없이 다 챙겨보지만 중요한 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연기가 가장 즐겁기 때문이다.

"연기한 걸 후회해본 적 없어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공부와 진로 때문에 힘드니까요. 연기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연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정말 잘 맞았거든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마음 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윤건 7년 만에 정규 4집

어쿠스틱 사운드 '어텀 플레이' 발표

싱어송라이터 윤건(사진)이 오는 27일 정규 4집 '어텀 플레이(Autumn Play)'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07년 발표한 '마이 로맨틱 오케이션'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정규 음반으로 지난달에 먼저 공개된 '가을에 만나'를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텀 플레이'엔 앨범 제목 그대로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음악이 주로 실린다. 특히 어쿠스틱 사운드를 중심으로 브릿팝·미디엄 포크·발라드·록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윤건은 컴백에 맞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윤건 채널과 네이버 뮤직 스페셜을 통해 유동현·박윤선 감독의 단편 음악 영화 '5분 고백'을 공개한다. '5분 고백'은 윤건과 배우 김호정이 주연으로 나선 단편 음악 영화로 윤건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영화 주제곡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가수 박지윤, 뮤지컬 배우 복귀

'사운드 오브 뮤직' 마리아 역 맡기로

가수 박지윤(사진)이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다.

박지윤의 소속사 미스틱89는 박지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 됐다고 22일 밝혔다. 박지윤이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2008년 '클레오 파트라' 이후 7년만이다.

주인공 마리아는 논베르크 수녀원의 청원 수녀로 활발하고 노래를 좋아하며 모든 것을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마리아 역엔 박지윤과 함께 뮤지컬 배우 최윤정도 캐스팅됐다.

박지윤은 소속사를 통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작품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음악들을 정말 좋아한다. 이번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오는 12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 중순까지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공연된다. /김지민기자

지독한 슬럼프 음악으로 탈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바비킴의 솔로 정규 4집 '거울' 쇼케이스에 참석한 가수 바비킴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4년 만에 새 앨범 '거울'로 돌아온 바비 킴

"지난 4년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느낀 모든 것을 이번 앨범에 담았습니다."

'소울음악의 대부' 가수 바비킴(41·김도균)이 4년 만에 네 번째 정규 앨범 '거울'을 발표했다. 그는 22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공백기와 새 앨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바비킴은 지난 2010년 정규 3집 '하트 앤드 소울' 발표 이후 스페셜 앨범, 부가킹즈 힙합 음반, 드라마 OST 등으로 음악 활동을 했으나 자신만의 음악이 담긴 앨범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년에 대해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3년 전에 추락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긴 무명 생활 끝에 2004년 '고래의 꿈'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했을 뿐 정신적으로 쉬질 못했다.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 보니 내 모습이 안 보였다. 음악을 하면서 아팠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을 통해 힘을 얻었고 이렇게 앨범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 '사과'는 바비킴의 애절한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발라드 곡이다. 곡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는 그의 아버지 김영근 씨가 연주했다.

김영근 씨가 아들의 타이틀곡에 트럼펫 연주를 맡은 것은 '고래의 꿈'에 이어 두 번째다. 바비킴은 "'고래의 꿈'이나 '사과' 둘 다 타이틀곡으로 정해지기 전에 아버지가 연주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타이틀이 됐다"며 "무척 쓸쓸했던 밤에 쓴 노래다. 가사를 누구에게 맡길 지 고민하던 중 내 술친구이자 존경하는 뮤지션인 이적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적은 이날 깜짝 축하 영상을 통해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래가 후지면 가사를 못 써주겠다고 했는데 아주 멋있는 곡을 줬다"며 "오래된 사랑을 함부로 대하던 한 남자가 연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적은 이어 "쓰레기같이 살았을 것 같이 생긴 바비킴이 부르면 더 와 닿을 거라 생각한다"고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수록곡 '굿 싱(Good Thing)'을 통해 작사가로 데뷔한 배우 강혜정도 영상을 통해 인사를 했다. 바비킴은 "이 노래는 모타운 사운드가 특징인 미디움 템포의 밝은 노래"라며 "긍정적인 가사를 원할 때는 늘 타블로를 찾았다. 그런데 그의 아내 강혜정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됐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행복한 강혜정의 모습이 좋아 보여 타블로를 통해 부탁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수록곡 '스타'는 가수를 꿈꾸는 한 아이의 이야기, 즉 내 이야기다. 슬럼프를 겪으며 어릴 때 내가 되고 싶었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지금도 이렇게 내 노래를 들으러 사람들이 와 준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킴은 오는 12월 밴드 YB와 함께 서울·대전·대구·부산 4개 도시에서 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감우성 '내 생애 봄날' OST 참여

배우 감우성(사진 오른쪽)이 자신이 출연 중인 MBC 수목극 '내 생애 봄날' OST에 참여했다.

감우성은 OST '아이 윌'을 직접 부르며 이봄이(최수영)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봄 햇살 같은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섬세한 곡 전개가 감우성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귀를 사로잡고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평가다.

'아이 윌'은 가수 가인이 부른 드라마 메인 곡 '아이 빌리브'를 제작한 이유진 프로듀서와 작사가 한준이 함께 작업했다. 특히 이유진 프로듀서는 최근 종영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임재범·휘성·투빅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OST 제작사 측은 "감우성은 빠듯한 촬영 일정에도 데모곡을 듣고 드라마와 잘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새벽 녹음을 강행하는 열정으로 '아이 윌'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아이 윌' 음원은 오는 23일 정오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주년 특별기획
미생
未生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내일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애교' 혜리

'음소거' 허영지

방년 ★ 4인 4색 키워드

'앞머리' 크리스탈

'오라방' 심은경

혜리 허영지 크리스탈 심은경

올해 성년이 된 방년 20세 스타들은 '애교' '음소거' 등 짧은 키워드로 승부를 보고 있다. 그룹 걸스데이 혜리는 애교의 대표주자가 됐고 그룹 카라의 허영지는 음소거 웃음으로 개성을 살렸다. 첫 주연에 도전한 그룹 에프엑스의 크리스탈은 데뷔 후 처음 앞머리를 잘라 화제를 모았고 배우 심은경은 "오라방"이라는 드라마 대사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혜리의 애교는 MBC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서 시작됐다. 사단장과 교관을 녹인 그의 애교는 남녀노소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애교 플레이어가 등장했고 tvN 'SNL 코리아'에도 출연해 극강의 애교를 보인 바 있다. 단독으로 광고에 출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애교가 혜리의 트레이드마크임을 증명했다.

허영지는 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한 신예다. 그는 SBS '룸메이트' 시즌2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시청자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목젖까지 보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웃는 일명 '음소거 웃음'이다. 허영지는 '룸메이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웃는 게 버릇인데 손으로 가리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소거 웃음을 선보였다. 제작진은 캐스팅 과정에서 카라를 만났고 허영지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는 '신의 한 수'라는 반응이다.

크리스탈은 올해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로 첫 주연에 도전했다. 윤세나 역할을 위해 앞머리를 잘랐지만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엔 '크리스탈 앞머리'가 있다. 데뷔 후 유지해 온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그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가끔 앞머리 없이 등장하면 그 모습이 화제가 될 정도다.

심은경의 키워드는 '오라방'이다. 오라방은 KBS2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설내일로 분한 그가 첫눈에 반한 선배 차유진(주원)을 부르는 애칭이다. 악보를 읽지 못하고 느낌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발랄하고 4차원적인 설내일의 성격을 대변하는 대사다. 그럼에도 "캐릭터 나이에 맞지 않다. 초등학생 같다" "그나마 심은경이니까 소화하는 거다"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작사 측은 "심은경은 노력파 배우"라며 "원작 일본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의 노다메와는 다른 인물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김흥수 '달콤한 비밀' 사랑꾼

'야경꾼일지'의 폭군 이미지 벗고 캐릭터 변신

배우 김흥수(사진)가 KBS2 새 일일극 '달콤한 비밀'에 출연한다.

'달콤한 비밀'은 발칙한 비밀을 가진 싱글맘과 냉소적인 남자가 아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김흥수는 작품에서 천성운 역을 맡았다. 패션 회사 위너스 그룹 본부장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내면의 상처가 있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지만 싱글맘 한아름(신소율) 앞에선 달라진다. 특히 한아름의 딸 티파니를 통해 변화하고 모녀의 버팀목이 되는 로맨티시스트다. 그는 냉혈한부터 따뜻한 면모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일 예정이다.

김흥수는 1999년 KBS 드라마 '학교2'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해 전역 후 KBS 드라마스페셜 '18세', OCN '신의 퀴즈'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MBC 월화극 '야경꾼일지'에서는 광기 있는 왕으로 변신해 존재감을 보였다.

'달콤한 비밀' 박만영 감독은 "김흥수는 극을 이끌어가는 힘 있는 배우"라며 "일일극에서 접하기 힘든 존재감으로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뻐꾸기 둥지' 후속으로 내달 방송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웰메이드' 향한 서스펜스

'가족의 비밀'… 신은경 '국민 엄마' 변신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tvN이 가을을 맞아 작심하고 드라마 세 편을 연달아 선보였다. '미생' '라이어게임'을 앞서 출격시킨 tvN은 1년 만에 아침 일일드라마 '가족의 비밀'을 27일 내보낼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칠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전세계 87개국에 수출된 '엘리사는 어디있나요'의 리메이크작이다. 연출을 맡은 성도준 감독과 신은경(사진)·김승수·효영·류태준·유서진 등 출연배우들은 첫 방송에 앞서 2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제작 발표회를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극 중 신은경과 카리스마 대결을 펼칠 차화연은 촬영 스케줄로 참석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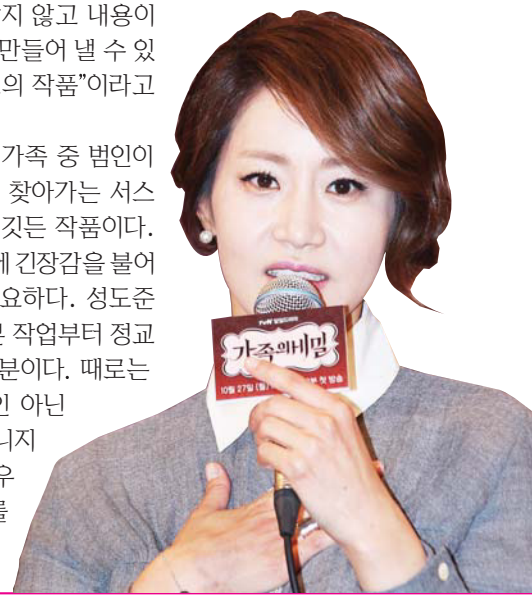
드라마는 총 100부작으로 로열 패밀리의 비밀과 파국을 다룬다. 딸을 잃어버린 한 엄마의 뜨거운 모성이 드라마 관전 포인트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 한정연 역을 맡은 신은경과 그의 시어머니이자 재벌그룹의 오너 진주란 역을 맡은 차화연이 있다.

신은경은 이날 "일전에 한 자리에서 한국 대표 국민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첫 포문을 열 수 있는 작품을 하게 돼 행운이자 영광이다"라며 "30년 연기 인생 중 가장 완벽하게 단결돼 있는 느낌을 받은 촬영 현장"이라고 드라마와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제 평생 가장 첫 번째로 꼽을 만큼 기억에 남을 작품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며 "형식과 형태가 정해져 있는 보통의 일일드라마와 많이 다르다. 형태가 내용을 낳지 않고 내용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드라마는 가족 중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찾아가는 서스펜스적 요소가 깃든 작품이다. 잔잔한 드라마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장치가 필요하다. 성도준 감독은 "첫 대본 작업부터 정교하게 진행된 부분이다. 때로는 범인이지만 범인 아닌 듯,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인 듯 배우들에게 연기를 부탁한 적도 있다"며 "촬영도 두가지 버전으로 찍은 경우가 있다. 모두 서스펜스적 장치인데 향후 극 전개를 물어보는 배우들에게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감독과 배우들은 시청자가 아침드라마에 흔히 기대하는 '막장' 요소보다 '웰메이드' 작품을 향한 열의를 더 보였다. 신은경을 제외한 모두가 악역인 이 드라마는 상황에 따라 인간의 이중적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며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11월은 할리우드 여배우들 대결

제니퍼 로렌스·카메론 디아즈 신작 선보여

제니퍼로렌스

다가오는 11월 극장가에는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세대를 초월한 흥행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제니퍼 로렌스, '아더 우먼'의 카메론 디아즈, '인터스텔라'의 앤 해서웨이·제시카 차스테인이 그 주인공이다.

다음달 20일 개봉 예정인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 받고있는 여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신작이다.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과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다. 혁명의 상징 모킹제이가 된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절대권력 캐피톨에 맞서 정면승부를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1990년생인 제니퍼 로렌스는 메이저와 마이너를 넘나들며 폭넓은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다. 2010년 영화 '윈터스 본'으로 주목 받았다. 2012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아카데미 최연소 여우주연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올해는 '아메리칸 허슬'로 골든 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니퍼 로렌스는 '헝거게임: 모킹제이'로 다음달 4일 첫 내한을 앞두고 있다.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카메론 디아즈는 다음달 13일 개봉하는 '아더 우먼'으로 국내 극장가를 찾는다. '아더 우먼'은 워킹우먼 뉴요커 칼리(카메론 디아즈)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자친구 마크에게 아내와 내연녀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과 함께 복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다.

16세 때부터 모델로 활동해온 카메론 디아즈는 '마스크'의 짐 캐리 상대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시리즈 등으로 섹시스타로 사랑받았다. '갱스 오브 뉴욕' '카운슬러' 등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보여줬다. '아더 우먼'에서 카메론 디아즈는 오랜만에 자신의 전매특허인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앤 해서웨이와 제시카 차스테인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인터스텔라'로 다음달 5일 극장가를 찾는다. '인터스텔라'는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체적인 줄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주인공 쿠퍼(매튜 맥커너히)의 딸 머피의 어른 역할을 맡았다. 앤 해서웨이는 쿠퍼의 우주비행사 동료로 출연해 영화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카메론 디아즈

'패션왕' 해외 판매 '쾌조'

홍콩·마카오·대만·태국·중국서 선 판매

웹툰 원작의 영화 '패션왕'(사진)이 개봉 전 홍콩·마카오·대만·태국·중국을 포함한 해외 5개국 선판매가 확정됐다.

'패션왕'은 '간지'에 눈뜬 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 기안고 '빵셔틀' 우기명(주원)의 인생을 건 도전을 담은 작품. 웹툰 작가 기안84의 동명 작품을 영화화했다.

주원을 비롯해 설리·안재현·박세영·김성오 등이 출연하는 '패션왕'은 개봉 전부터 쏟아진 관객들의 관심에 힘입어 해외 5개국 선판매를 달성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중화권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배우들의 만남으로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패션왕'의 홍콩·대만 배급사 오렌지 스카이 골든 하베스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류스타는 물론 한국의 문화와 패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의 영화 '패션왕'이 홍콩과 대만에서도 흥행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패션왕'은 다음달 6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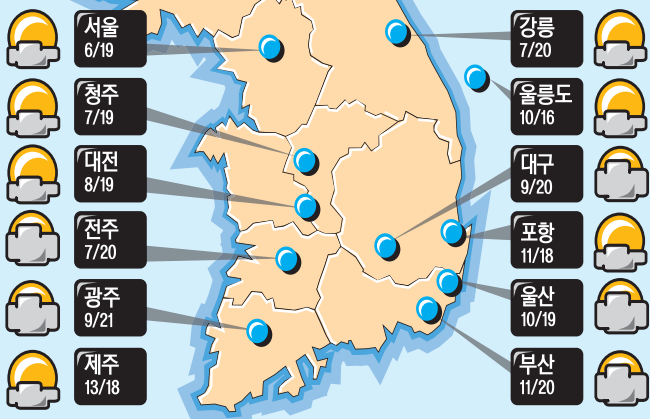
마동석 – 조한선 '교환' 캐스팅

묵직하면서도 강한 스릴러

배우 마동석(왼쪽 사진), 조한선(오른쪽)이 스릴러 영화 '교환'에 캐스팅됐다.

'교환'은 외딴 섬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작품이다. '호로비츠를 위하여' '트럭' '웨딩드레스' 등을 연출한 권형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

이번 영화에서 마동석은 베일에 싸인 의문의 남자 박성철 역을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을 한다. 영화와 드라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조한선은 아내와 함께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권준식 역을 맡아 연기 인생 최초로 스릴러에 도전한다.

'교환'은 강한 남성성을 대표해온 마동석, 조한선의 만남을 통해 묵직하면서도 강한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한다. 올 하반기까지 촬영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아침이 좋습니다. 식사 후 운동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식사를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운동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으면 빈대떡 대신 갈치를…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10월은 갈치가 맛있을 때다. 낚시꾼들은 삼겹살보다 맛있고 은빛 비늘은 황소 값보다도 높다고 한다. 비늘 값을 생선살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는 갈치 비늘이 고가 화장품의 원료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런 갈치지만 한때 빈대떡 같은 대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70년 전, 해방 전후로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고 했지만 그에 앞서 조선시대에는 갈치나 사먹으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헛돈 쓰고 싶지 않으면 소금에 절인 갈치를 사먹어라"

18세기 중반의 한양에서는 맛 좋은 갈치가 그만큼 값쌌던 모양이다. 그러니 아까운 엽전 꾸러미 낭비하지 말고 맛있는 갈치를 사 먹으라는 속담이 생긴 것이다.

도성 주민한테 인기가 높다 보니 바닷가 마을에서 잡힌 갈치는 소금을 뿌려 모두 한양으로 보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싱싱한 갈치와 물 좋은 준치는 한양으로 보내고 어촌 마을에서는 가끔씩 새우젓 파는 소리만 들린다고 했다. 어부들은 정작 갈치는 맛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갈치가 한양에 몰리다 보니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한말 관청에 물품을 납품했던 지규식(池圭植)이 남긴 '하재일기(荷齋日記)'에 갈치 값이 한 냥이라고 했는데 당시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밤에 참외 한 냥 어치를 사먹었다고 한 것을 보면 갈치가 그다지 비싸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갈치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조 무렵의 실학자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우리나라는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모두 갈치를 잡는데 계절에 따라 많이 잡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했다.

일 년 열두 달 갈치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오랜 세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 다양한 갈치요리가 발달하면서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랬던 갈치가 요즘은 갈수록 귀하고 비싸진다니 새삼스럽게 갈치가 맛있게 느껴진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4		6			7
		8		3			6	
	5			7				4
	4	1						
8								1
						5	8	
7				2			9	
	1			8		2		
5			7		9			6

					5			7
9					7		5	
	2		9	8			4	
7					3		1	9
			8		6			
8	3		7					4
	4			9	8		7	
	8		5					6
2			6					

스도쿠 정답

2	3	9	4	1	6	8	5	7
4	7	8	9	3	5	1	6	2
1	5	6	2	7	8	9	3	4
3	4	1	8	5	7	6	2	9
8	9	5	3	6	2	7	4	1
6	2	7	1	9	4	5	8	3
7	6	3	5	2	1	4	9	8
9	1	4	6	8	3	2	7	5
5	8	2	7	4	9	3	1	6

3	1	8	4	6	5	9	2	7
9	6	4	3	2	7	1	5	8
5	2	7	9	8	1	6	4	3
7	5	6	2	4	3	8	1	9
4	9	2	8	1	6	7	3	5
8	3	1	7	5	9	2	6	4
6	4	5	1	9	8	3	7	2
1	8	3	5	7	2	4	9	6
2	7	9	6	3	4	5	8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외국 여성과 결혼한 오빠 잘살까요
노력하면 49세 이후 풍족하게 살아

Q 기쁜걸 남자 74년 10월 27일 음력 밤 7시 15분

3살 위인 친오빠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올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숫기 없고 내성적인 성격에 참을성 책임감이 많고 무서운 성정의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 아버지와도 별 대화가 없습니다. 워낙 가족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 오빠 걱정이 많습니다. 사주에 관심이 있어 어제는 잠자기 전 혼자 알아본 얕은 지식으로나마 오빠의 사주를 가만 보는데 까막눈임에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차도 문화도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아가씨와 결혼생활은 어떨지 직업선택 그리고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상황이 알고 싶습니다!!

A 74년생의 사주는 어려서부터 조숙함이 있고 자존심이 남다릅니다. 인내하는 노력도 대단한데 운세의 흐름에서 실력 발휘가 저조하게 되다보니 특정한 성과가 따르지 않아 평생고뇌하며 살수가 있습니다. 사주용어로 이전최화(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잘라 버림)의 형상인데 아름다운 나무에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안타까운 사주이겠으나 몇 년 후 49세 이후부터는 다소나마 뒤늦게 자신이 지향하는 운을 만나 재물과 정신적인 면에서 풍족하게 되니 운세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분발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니 고뇌가 있더라도 현재 하는 일(닥트설비업종)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 보다는 이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재운(財運)이 좋게 되며 노후가 보장 됩니다. 천을귀인(어려운 때 귀인의 도움을 받음)이라 보이지 않는 기운인 조상님, 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상관(傷官:내가 생해주는 직업)이 득세하는 운이므로 기술, 서비스직업으로 이어집니다. 사주원국에 토기(土氣)가 부족하므로 흙을 접하고 살면 장수하게 되고 본인이 오너를 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도와서 일을 해야 맞는 선택이라 봅니다. 결혼생활은 부인인 재성(財星)의 기운은 사주 뿌리에 도화 살이 있으니 그림이나 음식을 취미로 배우면 삶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사주공부를 취미로 한다면 앞으로 삶에 오빠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터이니 처음에는 깊이가 없더라도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것도 교육의 체계이니 꾸준히 해 보십시오. 피해야 할 일은 대인관계가 폭 넓지 않다보니 남의 감언이설에 속을 수 있음을 늘 유의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3일 (음 9월 3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0년생**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생각 버려라. **72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84년생** 초심으로 돌아가 일로 승부하라

49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61년생** 긍정의 힘 믿으면 웃는다. **73년생** 따로 생각한 것 쓸 기회오니 대비하라. **85년생** 땀 흘린 만큼 유쾌한 반란 즐긴다.

50년생 금융투자는 갈아타는 게 이롭다. **62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7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6년생** 사랑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니 기죽지 말라.

51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63년생**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온다. **75년생** 꼰대 소리 듣더라도 제대로 말하라. **87년생** 데이트 하면 충돌 가능성 높다.

52년생 삶에 좋은 변화가 있다. **64년생** 자영업자는 좀생이가 아닌 프로가 되어라. **76년생** 직장인은 존재감을 보여준다. **88년생** 자신과 연인이 다 좋은 일을 택하라.

53년생 명분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 **65년생** 자영업자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77년생** 어려움은 풀리니 걱정 말라. **89년생** 멋진 롤 모델 소개를 받는다.

42년생 자손에 작은 경사 생긴다. **54년생** 가족과 한목소리를 내라. **66년생** 직장인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온다. **78년생** 못마땅해도 대세를 역행하지 말라.

43년생 혼자보단 상생의 길 선택할 것. **55년생** 선택의 기로서 고민에 빠진다. **67년생** 아랫사람에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 **79년생** 드디어 눈물이 마를 날이 온다.

44년생 충고가 길면 잔소리가 된다. **56년생** 상처만 남는 집안싸움 피하도록 노력할 것. **68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80년생** 싱글은 멋진 소개팅 기대해 보라.

45년생 평범한 일상에 편안한 하루~. **57년생** 오랫동안 전념한 일은 열매 맺는다. **69년생** 전진보단 자기개발 힘쓸 때~. **81년생** 할 말이 있어도 입도 못 떼는 격~.

46년생 아랫사람 말 듣는 게 좋다. **58년생**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말라. **70년생** 까맣게 몰랐던 것이 약이 된다. **82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하니 가슴이 쿵~쿵~.

47년생 감사표현은 그 자리서 하라. **59년생** 기회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격이다. **71년생** 세대교체 주역되어 어깨가 무겁구나.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LG,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눈앞에

NC 상대로 적진에서 2연승 거둬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뒀다.

LG는 2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 2차전 원정경기에서 4-2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19일 열린 1차전에서 13-4로 대승한 LG는 적진에서 2연승을 거뒀다. 정규시즌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LG는 앞으로 남은 세 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라 정규시즌 2위의 넥센 히어로즈와 한국시리즈 진출을 두고 승부를 겨루게 된다.

LG는 이날 승리로 준플레이오프 통산 7연승을 기록했다. LG는 지난 1993년과 1998년 OB 베어스를 상대로 각각 2승1패와 2승, 2002년에는 현대 유니콘스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날 LG는 우규민의 호투와 1회 정성훈의 솔로포, 4회 스나이더의 투런포를 앞세워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정성훈은 1볼-2스트라이크에서 NC 선발 에릭 해커의 시속 146㎞의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아치를 그렸다. 에릭은 이후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4회 스나이더에게 2점짜리 우중월 홈런을 얻어 맞았다. 스나이더는 1사 1루, 볼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1㎞짜리 직구가 들어오자 방망이를 휘둘러 펜스 너머로 날렸다.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NC는 7회 선두타자 에릭 테임즈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겨우 만회점을 뽑았다. 이어 LG 세 번째 투수 신정락을 상대로 이호준과 모창민이 안타를 날려 1사 1,2루로 기회를 살렸다. 대타 지석훈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7회 수비부터 포수 마스크를 쓴 이태원이 우중간 적시타를 날려 2-3으로 한 점 차까지 따라 잡았다.

하지만 LG는 계속된 2사 1,3루 위기에서 이동현을 내세워 박민우를 삼진으로 쫓아냈다. 9회초 1사 1루에서 이병규(7번)의 내야플라이 때 대주자 문선재의 주루 플레이가 NC 2루수 박민우의 실책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득점 플레이가 돼 승기를 잡았다.

NC는 박민우가 공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미 2루에 와 있던 문선재까지 아웃시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실점하게 됐다. 9회 등판한 LG 봉중근은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우규민은 이날 5이닝 동안 4안타와 볼넷 하나를 주고 탈삼진 3개를 곁들여 무실점하며 승리투수와 함께 경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안았다.

LG와 NC는 하루 쉬고 24일 오후 6시30분 LG의 홈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른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22일 오후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 2차전 NC다이노스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LG 선수들이 N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뒤 하이 파이브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PO 2차전 22일

■ 마산

팀	1-3	4-6	7-9	계
LG	100	200	001	4
NC	000	000	200	2

△승 = 우규민(1승) △ 세이브투수 = 봉중근(1세이브) △패 = 에릭(1패) △홈 = 정성훈 1호(1회1점) 스나이더 1호(4회2점·이상 LG) 테임즈 1호(7회1점·NC)

'1000㎞' 원정 응원 보답 못해서…

EPL 선덜랜드 입장료 환불… 선수들이 분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선덜랜드가 원정 경기를 찾은 팬에게 입장료를 되돌려 주기로 해 씁쓸한 감동을 선사했다.

선덜랜드는 지난 18일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어웨이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에 0-8로 완패를 당했다. 이에 선덜랜드는 먼 길을 찾은 팬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완패에 대한 사과로 입장료 24파운드(한화 약 4만원)를 환급하기로 했다.

선덜랜드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우샘프턴에 진 경기를 본 원정 팬에게 입장권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11월 5일까지 환불을 원하는 팬에게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팬의 입장료는 선덜랜드 지역 아동 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에는 선덜랜드 팬 2500여명이 원정길을 함께 했다. 영국 북동부에 있는 선덜랜드에서 남부 해안가인 사우샘프턴까지는 왕복으로 무려 1000㎞가 넘는 거리다.

입장료를 팬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은 골키퍼 비토 만노네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불 총액은 약 6만 파운드(한화 약 1억원)로 선덜랜드 소속 선수들이 부담한다.

선덜랜드 주장 존 오셰어는 "서포터스가 우리를 응원하고자 그렇게 먼 길을 와주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선덜랜드는 자책골만 2개를 기록했다. 전반 12분 자책골로 선제점을 내준 뒤 전반전에만 3골을 뺏겼다. 후반 18분 다시 한번 터진 자책골 이후 4골을 연달아 내주며 무기력한 경기로 원정 팬의 야유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가 지난 18일 사우샘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0-8 완패한 것을 사과하며 원정 팬에게 입장료를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AP뉴시스

손흥민 28m짜리 중거리 포

분데스리가 8라운드 '이번 주의 골' 선정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사진 가운데)의 골이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최고의 골'로 선정됐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에는 22일(한국시간) "정규리그 8라운드에서 멋진 골들이 많이 나왔지만 손흥민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터트린 골이 '이번 주의 골'로 선정됐다"는 발표 글이 게재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이 터트린 골은 팬 투표 60%를 차지해 후보로 경합한 바이에른 뮌헨의 마리오 괴체(17%)를 크게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과 전반 9분에 잇달아 골을 넣었다. '이번 주의 골'로 선정된 것은 전반 9분 터트린 28m짜리 중거리 슈팅이다. 손흥민은 골키퍼가 멀리 차내지 못한 볼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잡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슈투트가르트의 골그물을 흔들었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22일

팀	점수	점수	팀
IBK기업은행	3	0	GS칼텍스
현대캐피탈	3	0	우리카드

프로농구 전적 22일

팀	1Q	2Q	3Q	4Q	계
모비스	18	22	16	16	72
동부	17	13	15	16	61
KCC	16	15	22	25	78
KT	12	25	15	22	74

FA컵 4강전 전적 22일

팀	점수	점수	팀
전북	0	0	성남

전북 4 PK 5 성남

팀	점수	점수	팀
상주	0	1	서울

△득 = 김주영(전8분·서울)